

# 중국 신창타이(新常态) 체제하의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의 대응방안

## 요약

2014년 5월에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경제가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기에 신창타이(新常态; new normal)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이후 신창타이는 변화된 중국 경제 정책의 주요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신창타이는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신창타이 체제하에서 중국 경제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며 내수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해 자급률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수입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국의 신창타이는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신창타이로 인한 영향과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4년 현재 중국과 한국의 석유화학제품 생산구조 및 원가구조를 분석한 결과,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자급률이 높아지면 우리나라의 대중 범용제품 수출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신창타이 체제하에서 중국 석유화학업계가 내수에 초점을 맞춘 질적 성장을 강조한다면 중국 석유화학산업과 관련 산업의 수요도 변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범용제품 위주의 수요에 대응하여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던 방식이 중국 소비자들의 고급화된 수요에 맞추기 위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가 중장기적으로 추진된다면 도로, 철도, 전력망 등 인프라 건설 분야의 수요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제품의 수입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1. 중국 경제의 여건 변화 : 신장타이(新常态)

2014년 5월에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경제가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기에 신장타이(新常态; new normal)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같은 해 12월에 열린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안정속 발전(稳中求进)을 경제정책 기조로 채택하며 경제발전 신장타이를 제시하였다<sup>1)</sup>. 이후 신장타이는 변화된 중국 경제정책의 주요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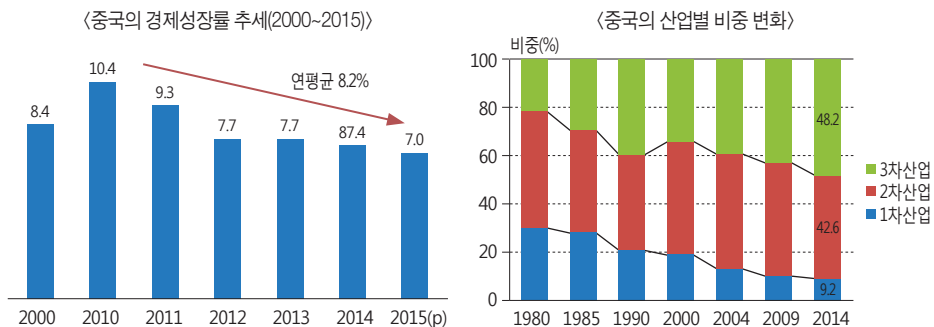
2010년까지 중국 경제는 연평균 10% 이상의 고속 성장 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성장 추세는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투자와 수출 중심의 경제정책을 바탕으로 진행되어 왔다. 2008년에 중국은 핵심 목표 시장이던 미국과 EU 지역이 금융위기로 인해 수입수요가 감소하며 큰 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 이후 중국은 수출 의존도를 낮추

고 내수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수정하였다. 실제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에 10.4%로 정점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는 경제성장률 8%를 밑돌면서 7.4~7.7%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8.2%씩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중국의 산업별 비중도 2009년을 기점으로 3차 산업이 2차 산업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그림 1〉 참조).

2014년 중국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한 경제발전 신장타이는 수요, 공급, 그리고 시장 측면에서 9가지 특성을 표방하고 있다. 수요와 관련된 소비, 투자, 수출은 다양성 존중, 새로운 투자기회 증대, 고급제품 수출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신장타이하에서의 소비는 개성화, 다양화된 소비 형태를 보이고 투자는 신기술, 신제품, 신업종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투자기회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수출은 기존의 저가 제품 위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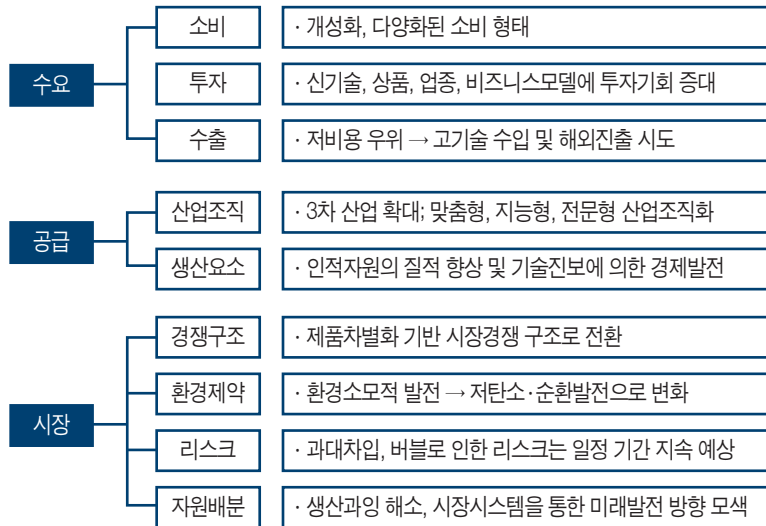
1) 시진핑 주석은 2014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15년에도 안정속 발전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의 질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경제발전의 신장타이 시대에 적극적으로 적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이봉걸, 2015, 2015년 중국경제 키워드는 신장타이, 서비스산업, 일대일로, Trade Brief,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그림 1〉 중국의 경제성장률 추세 및 산업별 비중 변화



자료 : 왕윤중, 2015, 신장타이 시대의 중국경제, 아베노믹스와 일본 제조업의 부활, SK 경제경영연구소; 이봉걸, 2015, 중국 신장타이 시대 진입에 따른 새로운 대중전략 필요, Trade Brief,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그림 2〉 신창타이의 주요 내용



자료 : 이봉걸, 2015, 2015년 중국경제 키워드는 신창타이, 서비스산업, 일대일로, Trade Brief,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서 벗어나 기술집약적 제품 생산을 통한 해외진출을 시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신창타이 체제에서 공급과 관련된 산업조직과 생산요소도 선진국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에서 3차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지식기반의 전문적이고 맞춤형 공급망(supply chain)을 구축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 및 기술적 진보에 기반을 둔 경제발전을 추구한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의 배경에는 중국 인구의 노령화, 농업인구의 감소, 그리고 규모의 경제효과 감소가 지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창타이하에서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관련하여 경쟁구조, 환경적 제약, 리스크, 그리고 자원배분에 대한 변화를 제시했다. 경쟁구조는 제품차별화에 기반한 시장경쟁구조로 전환되고 환경소모적인 발전방식에서 저탄소, 순환발전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또한 자원의 배

분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과잉되어 왔던 생산을 줄이고 시장시스템을 활용하여 미래 중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중국 정부는 경제적 위험요소들을 총체적으로 제어하지만 지금까지 지속된 과대차입과 버블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는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그림 2〉 참조).

새롭게 변화된 신창타이 체제에 적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8대 중점사항과 5대 임무를 제시했다(〈표 1〉 참조). 8대 중점사항은 가계 수요, 시장을 중시하면서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과학기술 혁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5대 임무는 안정적 경제성장, 신성장동력 발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신흥 산업과 서비스 산업을 진흥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내수시장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기반의 신기술, 신제품, 신비즈니스 모델을 발

〈표 1〉 신창타이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8대 중점사항 및 5대 주요 임무

8대 중점 사항	5대 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계수요 만족</li> <li>· 시장과 소비심리 분석</li> <li>· 사회예측 유도</li> <li>·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li> <li>· 기업가의 재능 발휘</li> <li>·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의 질 향상</li> <li>· 생태문화 건설 강화</li> <li>· 과학기술 진보 및 혁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적 경제성장</li> <li>· 신성장동력 발굴</li> <li>· 농업발전방식 전환</li> <li>· 지역경제발전 특화</li> <li>· 민생보장과 개선</li> </ul>

자료 : 이봉걸, 2015, 2015년 중국경제 키워드는 신창타이, 서비스산업, 일대일로, Trade Brief,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굴함으로써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신창타이는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와 수출 중심의 인위적 경기부양을 활용했던 기존의 고도성장 정책이 앞으로는 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하고 정부의 개입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는 비록 경제발전 속도가 다소 느려지더라도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성장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2013년 이후로 연평균 8% 미만의 중속 성장을 시작했으며 수출 및 투자보다는 소비 및 서

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구조개편을 예상한 바 있다. 아울러 구조조정 및 경제개혁을 위해 낙후되어 있거나 지금까지 과잉투자되었던 5대 산업(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판유리, 조선)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고 있다. 이들을 종합해 볼 때, 2015년 이후 중국 경제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며 내수시장 성장을 위해 자금률을 확대할 것이므로 중국의 수입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국의 신창타이는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신창타이로 인한 변화의 영향 및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 2. 중국 시장 내 한국 정유·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분석<sup>2)</sup>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내수시장 규모가 협소하기 때문에 수출의존도가 높다. 특히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에서 중국은 2014년까지 단일 국

가로서는 최대 무역 흑자국의 위상을 갖고 있다.

2) 본 절은 '산업연구원, 2015, 「한중 FTA의 효율적 활용 방안 발굴 사업」,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내용을 요약·정리함.

〈표 2〉 우리나라 석유화학제품의 대중 수출동향(2007~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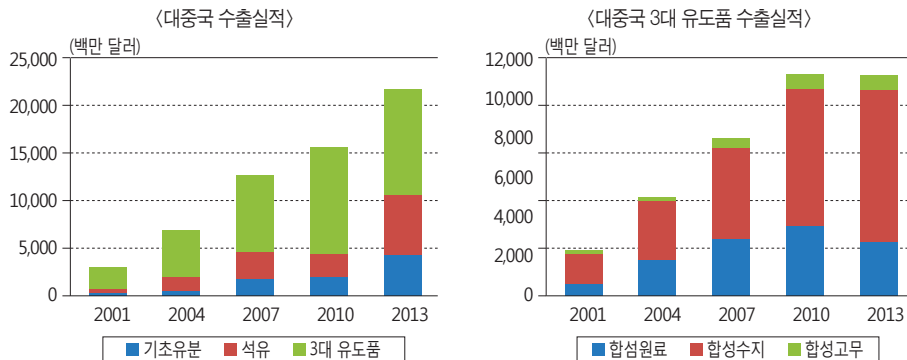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07	13,937	1,062	12,875
2008	14,902	1,373	13,529
2009	14,141	967	13,174
2010	17,084	1,233	15,851
2011	21,696	2,023	19,673
2012	21,702	1,749	19,953
2013	23,504	1,857	21,647
2014	22,153	1,833	20,320
2008~2014 증가율	48.7	33.5	50.2
2013~2014 증가율	△5.7	△1.3	△6.1
연평균 증가율	6.8	8.1	6.7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5, 무역통계.

2014년 현재 한국의 대중국 수출규모는 총 221억 달러이고 전체 석유화학제품 수출액의 45.7%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3년까지 한국의 대중 수출비중은 51%를 유지해 왔다. 반면, 중국 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규모는 1억 8,000 만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국은 우리나라 석유 화학산업에 있어 꾸준히 순수출(net export) 흑자 를 기록 중인 중요한 시장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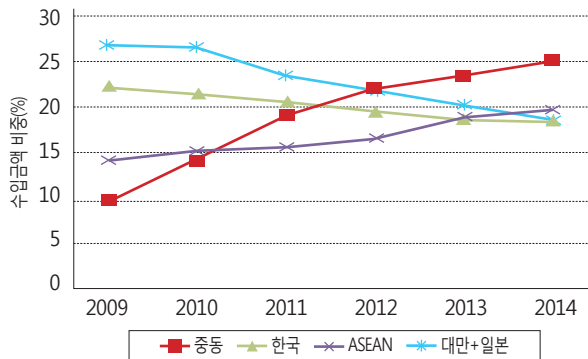
우리나라 석유화학제품의 대중국 수출량 규모 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수출증가율은 점차 둔화되고 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나라 석유화학제품의 대중국 수출규모는 약 4배 이 상 성장했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 정부 의 경기부양 정책의 여파로 순수출이 뚜렷이 증 가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 내수경기가 부진 하면서 수입수요가 감소하고 수출증가율이 둔화

〈그림 3〉 석유화학제품별 대중국 수출 추세 변화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5, 무역통계.

(그림 4) 주요 수출국별 중국 합성수지 시장점유율 변화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5, 무역통계.

되고 있는 추세이다(〈표 2〉 참조).

한편,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의 대중 주력수출 품목은 2010년까지 3대 유도품<sup>3)</sup>이었으나 2011년부터는 중간 원료제품과 기초유분계열 제품의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그림 3〉 참조).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중국의 석유화학산업이 발전하며 중국시장에서 원료 및 중간재에 대한 초과수요로 인해 수입수요 또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14년 현재 한국석유화학산업의 6대 대중 수출품목 중 상위 4개가 기초유분 및 중간원료제품(PX, SM, 프로필렌, 에틸렌)이다.

3) 3대 유도품은 합성수지, 합섬원료, 그리고 합성고무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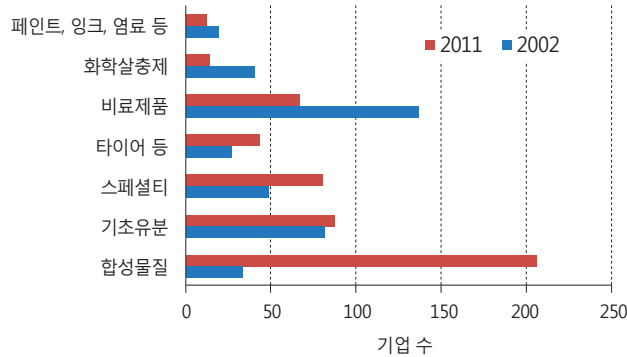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비중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3대 유도품 중에서는 합성수지 제품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최근에 합섬원료 제품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중국 석유화학 3대 유도품 시장에서 한국은 최대 수출국의 지위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4년 현재 중국 합성수지 시장에서 한국은 중동과 아세안산 제품에 시장점유율을 잠식당하고 있으며 합성고무 시장에서도 미국에 추월을 허용하였다. 또한 원가경쟁력을 앞세워 합성수지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중동산 제품이 합섬원료 및 합성고무 시장으로 진출하면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4〉 참조).

### 3. 신장타이가 한국 정유·석유화학산업의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석유화학산업은 해외로부터 원료를 수입해서 최종재를 생산하고 해외로 수출하는 전략

을 유지해 왔다. 원료의 해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 석유화학산업은 해외 원료가격 변동에 비

〈그림 5〉 중국 석유화학산업 구조 변화(2002~2011)



자료 : KPMG, 2013, China's chemical industry : The emergence of local champions.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08년에 중국의 주요 수출시장들의 여건 변화를 경험한 후 중국 정부는 해외 시장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그 결과 2013년 상반기부터 중국의 주요 석유화학제품의 생산 증가세가 체증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는 중국 내 교통 및 인프라 시장 수요의 감소와 중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산업진흥 정책 부재로 분석된다. 특히 중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 정책이 감소한 것

은 단기적으로는 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 신호에 의한 생산 최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정책적 변화로 인해 석유화학 기업이 입지한 중국 지방정부는 단기적 고용안정성 저하 및 지역총생산 감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구조변화는 최근 10년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중국 500대 석유화학기업 중 비료제품, 화학살충제 등을 생산하는

〈표 3〉 중국 석유화학산업 판매수익 변화(2002~2011)

단위 : 천만 RMB, %

	판매수익			판매수익 비중	
	2002	2011	CAGR	2002	2011
합성물질	175	515	12,7	13,0	21,3
기초유분	297	434	4,3	22,1	18,0
스페셜티	131	379	12,5	9,7	15,7
타이어 등	146	284	7,7	10,9	11,8
비료제품	422	281	-4,4	31,4	11,6
화학살충제	126	477	15,9	9,4	19,8
페인트, 잉크, 염료 등	48	44	-1,0	3,6	1,8
합계	1,345	2,414	6,7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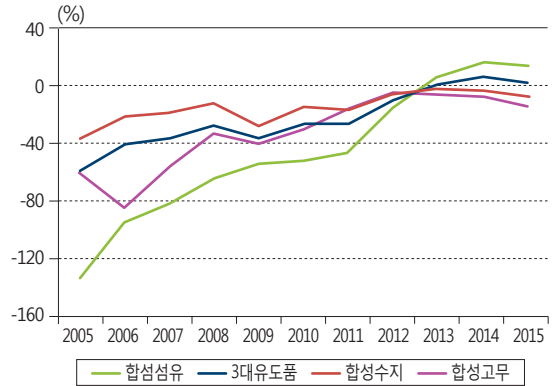
자료 : KPMG, 2013, China's chemical industry : The emergence of local champions.

기업의 수는 급감한 반면 스페셜티 제품과 합성물질을 생산하는 기업 수는 급증하고 있다(〈그림 5〉 참조). 또한 2002년에는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총 생산액 중 비료와 기초유분 제품의 비중이 높았으나 2011년에는 합성물질, 기초유분, 스페셜티 제품 등으로 다각화된 것이 특징이다. 이 중에서도 스페셜티 제품과 합성물질은 연평균 12%가 넘는 고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표 3〉 참조).

한편,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주력 제품도 범용 제품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되기 시작하고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범용석유화학제품 생산은 줄어들고 있으나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증가율은 26.6%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윤증가율 측면에서 스페셜티 제품은 41%, 합성고무는 29%, 생화학제품은 27%를 기록하는 등 중국 내수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구조변화 추세에 맞춰 중국 정부는 2011년에 〈제12차 정유·석유화학산업 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는 이번 계획에서 중국 정부는 national champion을 육성함으로써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을 마련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2015년까지 두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첫째, 국제적 가치사슬을 형성함으로써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비용최소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 둘째,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서부 내륙지방 개발에 정유산업 및 석유화학산업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5개년 계획의 결과로 중국의 석유화학업계는 내수시장의 수요에 대응하도록 경쟁

〈그림 6〉 중국 석유화학제품 공급과잉률 추이 (2005~2015)



자료 : 한국석유화학협회, 2015, 내부자료.

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여 자급률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공급과잉률을 추정해 결과, 2012년과 2013년 사이를 기점으로 중국시장에서 석유화학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은 공급부족에서 초과공급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하였다(〈그림 6〉 참조). 3대 유도품 중에서는 합성섬유의 공급과잉률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기술장벽이 가장 높은 합성고무는 여전히 공급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경제에서 신장타이 이슈가 대두된 시점과 중국 석유화학 3대 유도품 시장의 초과공급이 시작된 시점이 유사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결과는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2014년 현재 중국과 한국의 석유화학제품 생산 구조 및 원가구조를 분석한 결과,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자급률이 높아지면 우리나라의 대중 범용 제품 수출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목별로 중국의 자급률이 다르기 때문



〈표 4〉 석유화학산업의 부문별 한중 경쟁력 전망

	대중국 경쟁열위 부문	경쟁이 심한 부문	대중국 경쟁우위 부문
현재	· 석탄 등 석유 대체재를 통한 제품생산	· 촉매, 공정 · 특화기술	· 합성고무 · 중국 자급화 저조 품목
5년 이후	· 셰일가스(중국 서부지역 중심) · 석탄화학(CTO)	-	· 첨단 고부가가치 소재 · 핵심중간재

에 자급화가 완료될 때까지 한국산 범용제품의 대중 수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sup>4)</sup>. 실제로 중국은 2015년부터 MDI, NBR, PBR 제품의 자급화가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PP, SBR 제품은 2017년에 자급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의 석탄기반 화학제품에 비해 원가경쟁력에서 열위에 있고 향후 중국 서부지역의 셰일가스 개발이 본격화되면 에틸렌 기반의 석유화학제품의 자급률도 증가하여 수입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자급화가 완료될 때까지는 중국의 수입수요에 대응하여 국산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이 지속될 것이고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은 핵심중간재와 첨단 고부가가치 소재에 대한 수입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여건 변화가 우리나라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우리나라 석유화학제품의 대중 수출구조를 계량분석한 결과 중국의 자급률이 대중 수출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추정되었다<sup>5)</sup>. 또한 중국의 자급률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 미치는 한계효과도 다른 요인들에 비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자급률이 1% 상승하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량은 0.47% 감소하여 다른 변수들(수출단가, 환율, 에틸렌-납사 스프레드 등)보다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의 자급률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4) 산업연구원, 2015, 「한중 FTA의 효율적 활용 방안 발굴 사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5) 최동원·조용원, 2015,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국내 정유·석유화학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슈페이퍼, 산업연구원, 발간 예정.


## 4. 한국 정유·석유화학산업의 향후 대응방안

신창타이는 지금까지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 왔던 중국 경제정책 패러다임이 내수시장에 집중된 질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 경제정책의 변화(新常态)는 한국 석유화학업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된다. 특히 신장타이 체제하에서 중국 석유화학 산업의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대중 수출전략도 수정이 필요하다. 실제로 대중 수출모형을 통해 중국의 자급률이 1% 상승할 때 국내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은 0.47%만큼 감소한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신장타이 체제하에서 중국 석유화학업계가 내수에 초점을 맞춘 질적 성장을 강조한다면 중국 석유화학산업과 관련 산업의 수요도 변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범용제품 위주의 수요에 대응하여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던 방식이 중국 소비자들의 고급화된 수요에 맞추기 위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 소비자들의 변화된 수요는 석유화학 전방산업(자동차, 전기전자, 생활소재 등)의 수요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급 차량소재 및 전기전자제품 소재, 기능성 의류 소재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석유화학

중간재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15년 현재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기초원료로 사용되는 EG의 대중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국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PVC, EPS 제품의 수입수요는 감소하고 있다. 아직까지 중국 내수 수요에 비해 자급률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고부가가치 제품은 핵심 중간재를 일본 등으로부터 수입 및 가공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석유화학업계의 전략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 석유화학 전방산업의 수요 변화를 우리나라의 수출전략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인 중국시장조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가 장기적으로 추진된다면 도로, 철도, 전력망 등 인프라 건설 분야의 수요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제품의 수입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용원

주력산업연구실·부연구위원  
yongwon@kiet.re.kr / 044-287-3079  
〈주요 저서〉

• 차이나 리스크에 직면한 석유화학산업의 대응방향(2015, 공저)